

2016 새 설계

이흥목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확대...판매농협 구현”

지자체·농업인·농협 공동사업 확대

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금융사업 강화...2년내 클린뱅크 인증

“조직역량을 하나로 모아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농업인과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흥목(56) 본부장은 1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조원들과 고객에게 고마운 농협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도 “농업·농촌이 없으면 우리의 뿌리가 없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다양한 채널과 조화롭게 소통해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농협을 만들자”고 강조한 이 본부장은 직영간 특화, 계통간 소통을 통해 개인 이기주의와 조직간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불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 상생하며 시너지를 확산하는 소통의 농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농협 조직간 시너지 제고 ▲판매사업 활성화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현장중심의 농업·농촌 실익지원 ▲농촌인력지원사업 확대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랑나눔실천 등을 2016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있는 생산지이자 소비지로서 판매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전업농과 중소농업인을 구분, ‘투-트랙’ 전략으로



둘과구를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전업농은 농가조직화·계열화를 통해 규모화, 전문화하는데 주력하고 중소농은 지역농산물 소비 중심의 로컬푸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연계해 개장한 ‘평동농협 무인로컬푸드매장’과 광주시청 내 ‘서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모범사례로 삼아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는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이 150만 광주시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로컬푸드매장을 확대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중심의 농업·농촌 실익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지자체·농업인·농협의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체험관광 및 농산물 소비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 6차산업화의 기반을 다져나갈 전략이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 인력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구상도 갖고 있다. 지난해 광주본부는 농촌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 2959명의 인력을 지원·중개해 농촌일손문제를 해결했다.

농협이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공헌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농협 광주본부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 6년차를 맞아 더 많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계획이다.

간접 출신인 이 본부장은 목포마리아회고와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농협에 입사해 광주여성관리단장, 광주비엔날레 지점장, 광주풍암동 지점장, 목포유통센터 사장, 고양유통센터 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89.64 (+11.19)
-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1)
- ↓ 코스닥 681.25 (-2.38)
- ↓ 환율 (USD) 1205.90원 (-5.00)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오전 정부합동청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에 앞서 시연회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세액 간편 계산·공제 신고서 자동 작성 온라인 제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19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자료를 이용해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총급여액 등 기초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 등록해 주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종이없이 전산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새로운 모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대비에 나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기아차, 지난해 유럽서 사상 최대 판매

85만4920대...전년비 9.9% 증가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19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유럽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85만4920대를 판매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0년 60만대, 2012년 70만대 판매를 각각 넘어섰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8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현대자동차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47만130대, 기아자동차가 8.8% 증가한 38만4790대를 기록하며 양사 모두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다.

시장 점유율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6.02%를 기록해 2013년(6.18%) 이후 2년 만에 6%대를 회복했다.

업체별 순위에서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곤욕을 치르던 폴크스벤 그룹이 6.2% 늘어난 352만1803대로 1위를 차지했고 푸조(148만1008대), 르노(135만

8398대), 포드(102만875대), 오펜(94만6239대), BMW(93만5882대), 피아트-크라이슬러(87만2504대), 현대기아(85만4920대) 순이었다. 지난해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1420만대를 기록하며 2009년(1448만대) 이후 최저였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신형 투싼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전체 판매를 견인했다. 올해 초부터는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까지 가세함에 따라 양사의 주력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판매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27.7% 증가한 총 6만7천84대를 판매해 자동차 수요 증가를 15.9%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체별 판매 순위에서도 피아트-크라이슬러를 제치고 7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는 기아차 주력 모델인 신형 스포티지가 가세할 예정이어서 투싼, 스포티지 양대 소형 SUV로 최근 성장세를 접어든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스마트교육에 최적화

효성 빔프로젝터 8종 출시

효성그룹의 정보기술(IT) 전문 계열사인 효성ITX는 NEC 빔프로젝터 신제품 8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NEC의 공식 수입원인 효성ITX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에서 멀티스크린(Multi Screen), 전자칠판기능 등 스마트 교육 기능이 포함된 교육용 프로젝터 8종을 선보였다.

빔프로젝터 NP-UM352W는 짧은 거리에서도 대형 스크린에 깨끗하고 선명하게 투사된다. PC와 연결하지 않아도 내장된 팬 입력 도구를 이용해 판서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화이트 보드(전자 판서)’ 기능도 갖췄다.

NP-P502HL 제품은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2만 시간까지 유지보수 없이 가동할 수 있다. 제품 상세 설명 내용은 효성ITX 홈페이지(www.hyosungitx.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삼성전자 설비 베트남 이전 반대”

광주상의·광주경총·여성경제인협 공동 성명

광주상공회의소는 19일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의 생산라인 일부 해외이전 발표에 대해 광주경총·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1989년 설립된 이래 지역민의 사랑과 애정이 녹아있는 삼성전 재(주)광주사업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가 베트남 호치민시로 이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계를 넘어 지역민 전체가 깊은 근심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주)광주사업장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매출 감소는 물론 20% 이상의 고용감축과 200여 협력업체

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주)광주사업장은 광주시에서도 사업장 앞 도로를 삼성로로 명명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가전산업을 키우기 위해 약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발전과 함께해온 지역민의 자부심이다”면서 “기존 생산과 고용규모가 유지되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 동향과 관련해 실의에 빠진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6 광주·전남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판매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지역 특화상품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주)홈&쇼핑과 협력하여 우수 상품을 발굴, TV홈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 판매하는 「일사천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홈쇼핑 진출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온라인, 모바일 판매도 상담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6. 2. 17(수)까지 아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구분	신청 업체수	지원 내역
전라남도	9개사	- 선정기업은 입점수수료 22,000천원 지원(1회) - 판매에 따른 판매직접비(8%)만 실비부담
광주광역시	7개사	- 4월 이후 10월까지 방송 판매 완료

* 지자체 운영 : 광주광역시 일자리투자정책국 기업육성과,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

신청 및 선정 일정

사업	일정	비고
사업공고	1. 20	지역신문, 지역본부 홈페이지
기업모집 신청접수	1. 25 ~ 2. 17	이메일 접수에 한함(jhh52@kbiz.or.kr)
MD상담회	2. 25	홈쇼핑 매니저와 국내 유명 온라인·모바일
선정위원회	2. 26	판매 매니저와 판매상담 예정

* 선정업체는 추후 개별통지

신청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계획 참조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홈쇼핑 입점희망제안서) 다운로드 후 서류작성
- 제안서와 상품정보, 상품사진,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등 사본 첨부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우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5층 TEL.062)955-9966 FAX.062)951-9966 E-mail.jhh52@kbiz.or.kr

